

# <Altai系 民謠의 比較를 爲한 試論>

## Altai 民謠의 一考察

—특히 蒙古民謠를 中心으로—

朴 相 圭\*

- |               |               |
|---------------|---------------|
| 1. 序 言        | 3. 蒙古民謠의 本文   |
| 2. 蒙古民謠의 內容   | 3.1. 成吉思汗 紀念歌 |
| 2.1. 蒙古民謠의 沿革 | 3.2. 美麗의 姑娘   |
| 2.2. 蒙古民謠의 音樂 | 3.3. 女大出嫁之命歌  |
| 2.3. 蒙古民謠의 歌詞 | 3.4. 愛情歌      |
| 2.4. 蒙古民謠의 樂器 | 4. 結 語        |

### 1. 序 言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 인류의 言語의 系統적 分類(genealogical classificational of language)에 의하면 10가지의 形態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 Ural-Altai 語族을 분석하면 이 어족은 다시 Finno-Ugria 어파와 Altai 어파로 나뉘며, Altai 어파는 다시 Tungus・Mongol・Turkish 語群으로 나뉘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그 아래에 많은 方言(Dialect)을 포용하고 있으나 문헌의 빈약성 또는 여타의 이유로 인하여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分野에 천년을 넘지 못하는 연구가 현 실정인 것이다. 특히 한국어는 이 語派에 속하는 것으로 고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Tungus・Mongol・Turkish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흥미를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는 어떤 민족과 민족 사이에 사용하는 언어가 일치하는 수가 많음을 본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문화적인 상호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그러나 가령 우리 민족과 中國 민족에서 볼 때에, 우리는 중국 민족에 이천여년의 긴 세월에 걸쳐 중국 민족과 인접하면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과 중국 민족이 같은 系統이라고는 할 수 없

\* 暎園工業專門大學 專任講師

을 것이다.

또한 駕洛國記에 나오는 許后, 新羅의 昔脫解 및 瓠公, 제주도 삼성혈 說話에 나오는 女人들이 모두 바다에서 건너왔다고 하는 이런 사실 등으로 추리해서 우리 민족을 남방의 Indonesian · Polynesian · Philippine 들과의 同一起源說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 사이의 言語의 共通性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韓國語가 Tungus · Mongol · Turkish語群과 관련이 있고 이들과 같은 系統이라고 함은 政治文化的 차원을 넘어서서 人種學上 · 言語學上 · 民俗學上의 귀결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民俗學上으로 연결되는 蒙古民謠를 이해하고 연구하여 우리 민족과 蒙古 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聯關性을 파악하고, 그들의 心性과 우리네의 心性의 共通 · 相異點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되어진다. 역시 우리의 선조인 고구려 부여족은 만주 벌판을 중심으로 滿洲族의 활동무대와 같은 지역에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런 일들을 蒙古民謠를 통해서 같은 心性으로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滿洲의 民謠 및 風俗, 蒙古의 民謠 및 風俗을 연결하여 어떤 새로운 작업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筆者는 이런 사실을 주의깊게 생각한 끝에 「蒙古民謠」의 翻譯 및 解說을 시도해본 셈인데 조그만 돌맹이도 쓸 곳이 있다고 하듯 나는 그것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며 先學 · 同學 · 後學의 비판을 바라는 것이 솔직한 나의 심정이다.

## 2. 「蒙古民謠」의 內容

蒙古民謠의 內容 속에서 民謠名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① 成吉思汗紀念歌 | ② 成吉思汗軍歌  | ③ 青旗歌   |
| ④ 出征歌     | ⑤ 四大忠誠歌   | ⑥ 蒙古軍歌  |
| ⑦ 青年歌     | ⑧ 蒙古青年歌   | ⑨ 錦繡大地歌 |
| ⑩ 奮闘歌     | ⑪ 天風歌     | ⑫ 春風歌   |
| ⑬ 十遇歌     | ⑭ 蒙古樂花    | ⑮ 思故鄉   |
| ⑯ 爭取自由歌   | ⑰ 蒙古的財富   | ⑱ 達呼爾民謠 |
| ⑲ 母訓女歌    | ⑳ 女大出嫁之命歌 | ㉑ 寄遇    |
| ㉒ 奔布利訟(一) | ㉓ 奔布利訟(二) | ㉔ 送外子出征 |
| ㉕ 相對姻緣    | ㉖ 送郎出征歌   | ㉗ 思鄉曲   |
| ㉘ 刺繡的手帕   | ㉙ 月夜情深    | ㉚ 土拉河頌  |
| ㉛ 美麗的姑娘   | ㉜ 哈雅河之柳   | ㉝ 雁歸去   |
| ㉞ 脫特歌     | ㉟ 女中校傑歌   | ㊱ 感恩歌   |
| ㊲ 孤獨的駱駝   | ㊳ 聖地訟     | ㊴ 駿馬訟   |
| ㊵ 角力歌     | ㊶ 謝恩歌     | ㊷ 冬克爾   |
| ㊸ 思歸寧     | ㊹ 牧羊的老人   | ㊺ 美女遇俊男 |

④6 馬的歌

④7 愛情歌

④8 光棍樂

④9 珍珠爾瑪

⑤0 阿爾坦蘇哈

이상과 같은 50여편의<sup>(1)</sup> 「蒙古民謠」를 바탕으로 나의 見解와 對譯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 2. 1. 蒙古民謠의 沿革

民謠란 말은 蒙古語로 「HÖDĒ IN DŪ」<sup>(2)</sup> 또는 「ARAD IN DŪ」<sup>(3)</sup>이다. 전자는 그 地域에서 불리어지는 노래라는 것을 말한 것이고 후자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말이다. 양자는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것을 이룸이고 그 둘 사이의 의미의 차는 별로 없다.

英美國의 사람들은 民謠를 「Folk Song」 또는 「People's Song」 혹은 「Balladry」라고 한다. 楊家駱이 편찬한 「中國歌謠」라는 책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民歌這兩個字的涵義, 和我們現在所用的歌謠之稱最相似而切合, 口唱及合樂的歌, 則是中國歌謠二字的舊日的解釋」<sup>(4)</sup> 아무튼 「民歌」와 「民謠」라는 두 말의 뜻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蒙古의 민간에도 일종의 民謠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民謠의 성질과는 다른 民間藝術로서 「HOL BŌ SH ILÜG」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 뜻은 聯韻詩이다. 그것과 「中原」의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樂器의 伴奏가 있다는 점이 다르며, 또한 일종의 自作伴奏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그 밖에도 蒙古는 「DAIRALCHĀ」라는 民間藝術이 있었는데, 역시 말은 비슷하지만 악기의 반주가 없으며 두 사람이 聯頭韻의 詩句를 서로 이야기하는데, 곧 풍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앞에 말했던 英語의 「Balladry」란 명사가 蒙古의 「民謠」 뜻에 가장 가까우니 둘 다 聯韻詩이기 때문이다.

蒙古의 민간에는 일종의 직업적인 사람이 있는데 「HŪRCH」(胡固爾齊)라고 한다. 「CH」(齊)라는 것은 어미로서 사람을 나타내며 「HŪR」(胡固爾)는 「四絃胡琴」이란 뜻이며, 「HŪRCH」(胡固爾齊)는 胡琴을 타는 사람이니 이 「HŪRCH」는 多才한 藝人으로서 그가 胡琴을 타며 노래할 때에 바로 한 사람의 音樂歌手(DŪCH)가 되는 것이다. 또 그가 책을 말할 때에는 곧 멋있는 말로 읊어 들려주는 사람인 「說書家」(ŪLGERCH)인데; 胡琴을 타며 聯韻詩를 읊어 줄 때는 박학다식한 大詩人(HOLBŌ SHILÜGCH)이 되며 또한 胡琴을 타면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동을 하라고 권할 때는, 또한 이와 같은 일을 성취할 때는 사람들이

(1) 哈勘楚倫·吳榮桂 合編 「蒙古民謠」 蒙藏委員會印

(2) 都市가 아닌 시골인, 鄉間의 노래라는 뜻

(3) 民間의 노래라는 뜻

(4) “民謠라는 이 두 글자가 담고 있는 뜻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歌謠’라는 이름과 꼭 맞는 말인데, 입으로 부르며 함께 즐긴다고 하는 中國歌謠라는 말의 옛날 해석이다.”

존경하는 스승<sup>(5)</sup>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蒙古에 있어서 HÜRCH의 지위는 매우 높았으나 표면상으로는 다만 音樂家였을 뿐이니, 실제로는 서양의 吟遊詩人(Minstrelly)에 가장 가깝다고 할 것이나, 결코 民謠歌手(Balladeer)라는 단순한 가수는 아니었다.

蒙古語로 一般歌手는 「DÜCH」(達固齊)라 하는데 HÜRCH와는 다른 것이다. 蒙古語로 「歌」는 「DÜ」라고 하는데 사람의 목소리를 역시 「DÜ」라고 하니 「歌」와 「人聲」의 「音」과 「字」가 완전히 같다. 이는 곧 爾雅義行釋名에 말한 바 「人聲曰歌」라는 말과 그다지 다르지 않는 것이다.

Walter Scott (1771~1823)의 《변방 음유 詩人》(Border Minstrelsy)이란 책이 간행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치하하였지만, Janes Hogg의 老母만은 섭섭해 하면서 말하기를 「그런 노래들을 지었으면 불러야지 글로 써서 읽는 것이 아니다. 이제 좋은 물건들을 도리어 망쳐 놓았으니 아무도 다시는 그것을 노래로 부르지 않겠구나」라고 하였다. 그래서 당시에는 民謠란 마땅히 서로 입으로 노래하고 귀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속한 공동의 재산이었으나 그것을 인쇄하여 책으로 만들 것 같으면 지식층이나 音調로 曲을 부를 줄 알아야 그것을 사용하게 되니까 자연히 예술가 음악가의 독점물이 되어 버려서, 다시는 시골의 농사짓고 소를 치는 촌부나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즐길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 2.2. 蒙古民謠의 音樂

蒙古의 文字史를 살펴본다면, 그 시작은 12세기였으니, 이 때문에 12세기 이전의 蒙古 音樂과 歌詞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길이 없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1931년 이전에는 王公貴族들이 모두 개인 악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유명한 樂士(HÖGJIMCH)와 책이야기꾼(HÜRCH)을 같이 초청하였으니 그 대우가 매우 후하고 정성스러웠으며 지위도 꽤 높았다고 하였으며, 또 그들은 귀족과 평민 사이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蒙古의 비교적 오래된 絃樂의 無和聲 선율로 「ASAR HÖGJIM」(阿薩爾音樂)<sup>(6)</sup>이 있는데 근대에 있어서의 慶典音樂과 꼭 같으며 그 밖에 「NAIMAN EGESHIG」<sup>(7)</sup> 등이 있는데, 독특한 風格과 선율을 가지고 있으며, 曲中에 정감이 넘쳐 흐르고 있다.

여기에 代表的인 ASAR曲을 몇 개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HĀN ASAR」(可汗阿薩爾) : 작곡가 BISHIRELTU(畢希爾圖)의 傑作으로 제 1차 蒙古 西方 원

(5) 스승, 教師 導師는 蒙古語에서 SAIN BAGSH이다.

(6) 가장 숭고하고 위대하며 완전한 음악이라는 뜻.

(7) 蒙古의 八譜라는 뜻.

정의 개선 때에 作曲되었다. 崇高莊嚴하며 깊은 감동을 주는 역사적으로 考證해볼 만한 價値가 있는 慶曲歌曲이다.

- ② BĀTAR ASAR(英雄頌讚) : 작곡자는 ERDEN (額爾德尼)으로 위의 곡과 같은 시대의 것으로 많은 말이 뛰어 오르는듯한 용맹한 기개가 있다.
- ③ ALTAN ASAR(錦繡頌讚) : 젊은 女作曲家 GEREL(格勒爾)의 作品으로 曲調가 부드럽우며 평화로우면서 감동적인 것이다.

이런 ASAR HÖGJIM의 작곡자들은 모두 마음과 신비로운 기교로써 그 감정을 曲中에 전격적으로 쏟아 넣어서 듣는 이의 폐부를 흔들어 놓는 것이다. 다만 여기 曲調를 제공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蒙古民謠에는 高音과 中음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蒙古 남녀가 광활한 대사막과 광야에서, 자연히 목청을 돋우어 높게 노래부르고 싶은 충동이 나왔을 것이고 들판에서 소나 말의 무리를 쫓으며 높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을 것이니 마음 속의 감정을 털어 놓으려 하는 필요에서 나온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蒙古의 남녀들은 모두 노래부르기를 좋아하며 매년 명절이나 시집 장가갈 때나 제사를 지낼 때에, 또는 저녁에 모여서 연회를 가지고 손님을 청하고 또는 가정의 경사가 있을 때 등등 가지가지의 노래로써 흥을 돋구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蒙古의 民間에는 많은 蒙古의 慶典 악곡과 民間 歌謠가 불리어졌으니, 이는 蒙古人の 귀중한 유산이라고 할 것이다.

### 2.3. 蒙古民謠의 歌詞

音樂은 감정의 가장 직접적이고도 추상적인 표현을 위해서 歌詞로 그 뜻을 진솔하게 드러내며, 또한 樂曲의 고저와 장단의 音調로써 그 감정을 나타내니 이 둘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

蒙古民謠 歌詞의 90%는 押頭韻詩(Alliterative)이며 그 나머지 10%는 半頭韻詩이다. 英國의 押頭韻詩와 蒙古의 頭韻詩는 다만 形式上으로 다를 뿐이다.

빅토리아(Victoria)시대의 詩人인 스윈버언(A. C. Swinburne, 1837~1900)이 만년에 쓴 押韻詩는 독특한 風格에 있어서 英國文學史上 가장 숭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英詩의 押頭韻은 一行 중에서 頭韻으로서 그 發音을 重複하는 것인데 곧 「The Sun Sunk Slowly」와 같은 것이다.

蒙古詩의 頭韻이란 곧 各行 맨 첫 字의 머리자의 字母의 音韻으로서 押韻을 삼는 것이고, 통상 4행이 1段으로 되어서 四段 十六行이 한 수의 詩가 되며 每 4行 1段이 하나의 頭韻을 가지며 每行 속의 글자는 押頭이건 아니건 큰 관계없이 다만 每行의 言數가 모두 서로 같아야 한다. 그 밖의 小數의 叙事詩(Epic) 종류의 長詩는 全詩가 모두 하나의 頭韻을

쓰고 있다.

蒙古의 頭韻詩는 어느 때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창작자는 누구인가?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정확한 연대를 조사하기란 어렵다. 蒙古의 最古 文學冊인 「元朝秘史」(MONGOL UN NIGUCHA TOBCHIYAN)는 전체가 半頭韻詩로써 쓰여졌으며 또 成吉思汗(징기스칸) 嘉言錄이나, 皇帝(可汗)<sup>(8)</sup>과 大臣들 사이의 話談語錄 등은 모두 半頭韻이나 혹은 全頭韻으로 쓰여진 것이었다. 또 1938년에 伏爾加河畔의 古墓에서 發掘한 그곳에 쓰여진 蒙古文歌詞도 역시 頭韻詩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는 이 頭韻詩는 늦어도 징기스칸 시대에는 이미 사용되었다라고 말하여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史籍에 기재된 바 각 民族의 古代 文藝作品은 모두 詩歌體였으며, 각 민족 최초의 歷史記錄 또한 詩歌體로 된 것이 많은 것도 이런 點에서 매우 비슷하다 할 것이다. 印度의 베다(Veda)나 그리스의 호-머(Homer)의 叙事詩 등도 모두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4. 蒙古民謠의 樂器

蒙古民謠는 이제 가장 북방적인 風土의 特色을 지닌 民謠의 한 종류로 蒙古 각지에 울려 퍼지고 있다. 몽고민요의 가장 원초적인 樂器로는 家家戶戶에 있는 HŪR(四絃胡琴)과 CHŌR(和馬頭琴)의 두 종류가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HŪR(胡固爾)은 「胡人」인 HŪR가 발명하였기에 그 이름을 命名한 것이라고 한다. 漢나라 기록에 古代 북방 유목민을 통털어서 「胡」라고 칭했던 바, 蒙古族 역시 「胡」의 한 족속이 되나, 蒙古人이 계속 이 樂器를 잘다룰 줄 아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여기서 「胡」라고 한 것을 「蒙古人」을 指稱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CHŌR(馬頭琴)은 징기스칸 時代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하는 바에 의하면 CHŌR(朝高爾)라고 하는 말치는 사람(ADŪCH)이 발명한 것이라고 한다. 兩根琴絃이나 一根琴絃이나 모두 馬尾를 사용하여 만든 것인데 大提琴에 비해서 짧고 작을 뿐이며 琴의 몸체 맨 윗 부분에 말머리를 조각하였기에 漢語로 번역하여 통칭 馬頭琴이라고 하며 또 朝高爾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 수 세기 이래로 蒙古音樂도 외래 문화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민간에는 여전히 胡固爾琴과 馬頭琴이 흔히 쓰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 두 樂器가 값이 싸고, 가지고 다니기가 편할 뿐 아니라 胡固爾琴은 高音 樂器이기 때문에 無和聲의 선율 연주에 적합하고 音色이 유창하고 아름다워서 참으로 듣기에 좋은 때문이다. 馬頭琴은 낮고, 가라앉는, 부드럽고도 사람의 마음에 울리는 音調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만약 高·中·低의 3가지 音域을 가진 胡固爾琴에다가 다시 가라앉는듯한 馬頭琴이 더해진다면 정말 미묘하기 이를 데 없는, 아름답

(8) 可汗(皇帝)는 滿洲語 han, 칸  
蒙古語 kan, 칸이다.

다운 소리의 絃樂四重奏가 될 것이다.

이 아름답고 妙한 音樂이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 울려 퍼지고 더우기 푸른 하늘 흰구름과  
메를 지어서 노는 소, 말, 낙타 그리고 유목 텐트가 배경으로 같이 어울려진다면 그 情調  
를 찾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 3. 蒙古民謠의 本文

#### 3.1. 成吉思汗紀念歌

原文

- 1.
  - 成吉思汗의 功業을 찬양하는 詩句
  - 成吉思汗의 功業을 찬양하는 詩句
  - 成吉思汗의 功業을 찬양하는 詩句
  - 成吉思汗의 功業을 찬양하는 詩句
- 2.
  - 成吉思汗의 功業을 찬양하는 詩句
  - 成吉思汗의 功業을 찬양하는 詩句
  - 成吉思汗의 功業을 찬양하는 詩句
  - 成吉思汗의 功業을 찬양하는 詩句
- 3.
  - 成吉思汗의 功業을 찬양하는 詩句
  - 成吉思汗의 功業을 찬양하는 詩句
  - 成吉思汗의 功業을 찬양하는 詩句
- 4.
  - 成吉思汗의 功業을 찬양하는 詩句
  - 成吉思汗의 功業을 찬양하는 詩句
  - 成吉思汗의 功業을 찬양하는 詩句

위 民謠는 成吉思汗(Cinggiskan)紀念歌이다. 이 紀念歌는 音樂上으로는 雄勇莊嚴하게 부  
르는 노래며, 가장조이고, 2/4박자인 약간 빠른 행진곡 같은 노래인 것 같다. 그리고 위의  
原文의 句節은 4節中에서 2節까지만 옮겨 놓았고, 紙面上 2節까지 설명하기로 하겠다.

㉔ 口語로 된 위 民謠를 Romnize하면 다음과 같다.

- ① AR-UN GEGEHEN DELHEIN HOGOROND./  
ARBAN JÜGIN BUR-HAD IBEGEGCHI OROND./  
AMITEN BÜHÜNEI HAN EJEN BOL-JÜ./  
ASIA TIBI GEIGÜLHÜ IRWA ILER-BEI./

② AS-HAN HÜCHÜNTEI YESÜGEI BAGA-TUR./  
 ASURU BOYON TUHATAN Ü-GE-LEN./  
 AMURLINGUI ONON GOLIN EHIN-DE./  
 AHA DEGÜ TABAGULI HÜMÜ JI-BEI./

㉞ 成吉思汗紀念歌의 國譯<sup>(9)</sup>

① 광활한 대지 푸른 구름 하늘  
 위대한 사람이 그 사이에 태어나  
 纍纍한 기운이 서렸구나.  
 그래서 智勇 兼함이 빠르고  
 어머니의 敎訓은 어질고,  
 斜難河畔 동포 五兄弟가 회열에  
 손을 마주 잡았구나.

② 尊敬하는 징키스칸,  
 산과 같은 위엄을 갖춘 자세  
 빛나는 掃烽烟  
 여러 부대에 옷을 착용하도록 하게 하시고  
 恩德이 끝이 없도다.  
 하늘로부터 睿智를 받고 武功이 올리는 것이  
 아세아와 유럽의 雄大한 바람이 百世 後代까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흠모되어 영원하리라.

이 民謠의 樂譜를 보면 2/4박자에 雄勇莊嚴한 Tempo가 약간 빠른 노래이다. 行進曲과 같은 輕快한 線律을 가지고 있어서, 蒙古民族의 징키스칸 崇拜가 밝고 明朗함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위의 樂譜에서의 Romanize表記法은 文語를 그대로 音寫한 것은 아닌 것 같다. 文獻語와의 差異에서 우리는 口語의 表記法과 文語의 表記法에서 音樂의인 發聲法이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3.2. 美麗的 姑娘

다음 民謠는 美麗的姑娘(saiqan ükin)이다. 音樂上으로는 내림 나장조이다. 그리고 다음 p.20의 原文은 原文의 句節은 3節中에서 2節까지만 옮겨 놓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하겠다.

(9) 참고로 成吉思汗紀念歌의 原文을 漢譯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莽莽 大地 蒼蒼 雲天 / 纍纍 瑞氣 偉人 掘起於 其間 / 也速該 智勇兼 額詞倫 母教賢 / 斜難 河畔 同胞 五兄弟 携手 聯翩. ② 成吉思尊可汗 奕奕 具神 威 / 赫赫掃烽烟 諸部款服 感恩德 無邊 / 天縱睿智 家衍淵源 武功震 歐亞 / 雄風 彌塵寰 不朽 勲名 百世人 欽羨.



## ◎ 成吉思汗紀念歌의 樂譜



① 莽 莽 大 地 蒼 蒼 雲 天  
 ② 成 吉 思 汗 突 突 具 神 威

③ 巍 巍 瑞 氣 偉 人 崛 起 於 其 間  
 赫 赫 掃 輝 想 諸 部 長 眼 感 恩 德 無 邊

④ 也 速 該 智 勇 兼 顧 詞 倫 母 教 賢  
 ⑤ 天 縱 睿 智 家 衍 淵 源 武 功 震 歐 亞

⑥ 幹 難 河 畔 同 飲 五 兄 弟 攜 手 聯  
 雄 風 朔 座 實 不 朽 動 名 百 世 人 欽

㉑ 口語로 된 美麗的姑娘을 Romanize하면 다음과 같다.

- ① U-RUL NAI-CHIN U-LA HAN./  
 U-HAN NAI CHIN./  
 SERE-GÜ-LENG UL-SIN BAGSHI NARUD./  
 CHUG-LARAJ-BAI-NA./  
 HÖ-RÖNG-HAIYA HÖ-HÖRÖNG-HAI./
- ② CHA-RAI NAI-CHIN CHA-GA-HAN./  
 SA-NA NAI-CHIN./  
 SERE-GÜ-LENG CHERGINNOYOD NARUD./  
 CHUG-LARAJ-BAI-NA./  
 HÖ-RÖNG-HAIYA HÖ-HÖRÖNG-HAI./

㉒ 美麗的姑娘의 國譯<sup>(10)</sup>

(10) 참고로 美麗的姑娘을 漢譯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美麗的 櫻唇 伶俐的/儀態 文人 雅士 齊爭看/美麗可愛 愛啣 真可愛. ② 粉紅的 臉頰 動人的/身材 英雄 豪傑 齊爭看/美麗可愛 愛啣 真可愛. ③ 明亮的 雙眸 纖細的/柳腰 全城 婦孺 齊爭看/美麗可愛 愛啣 真可愛.

原文

① 아름다운 앵두같은 입술  
 영리한 자태를,  
 문인 아사는 서로 다투어서 보네.  
 아름다운 것은 사랑할 수 있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네.

② 분홍빛 얼굴 움직이는 몸매  
 영웅 호걸은 서로 다투어서 보네.  
 아름다운 것은 사랑할 수 있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네.

위의 「美麗의姑娘」에서 「아름다운 앵두같은 입술」의 表現方法은 마치 韓國的인 心性이 잘 나타내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흔히 「앵두 같은 입술」로 표현하였던 것 같다. 또한 「분홍빛 얼굴」의 표현 방법도 우리네의 방법과 흡사함을 알 수 있다.

◎ 美麗的姑娘의 樂譜

5 1 3 23 5 6 1 6 5 - 1̣. 2̣ 3̣ 5̣ 3̣

① 美 麗 的 櫻 唇 伶 俐 的  
 ② 粉 紅 的 臉 頰 動 人 的  
 ③ 明 亮 的 雙 眸 織 細 的

2̣ 1̣ 6̣ 1̣ - 3̣ 3̣ 2̣. 1̣ 6̣ 1̣ 2̣ 3̣. 2̣ 1̣ 3̣

儂 態 文 人 雅 士 齊 爭 看  
 身 材 英 雄 豪 傑 齊 爭 看  
 柳 腰 全 城 婦 孺 齊 爭 看

5. 6 2 1 6 3 2 3 5 -

美 麗 可 愛 嗜 眞 可 愛  
 美 麗 可 愛 嗜 眞 可 愛  
 美 麗 可 愛 嗜 眞 可 愛

우리 한국의 문장 표현 방법중에서 아름다운 女人을 나타낼 때에 「앵두같은 입술」, 「반달같은 눈썹」, 「보름달 같은 얼굴」, 「오목한 보조개」 등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분홍빛 얼굴」이란 「오목한 보조개」와 「보름달 같은 얼굴」을 합한 내용이라 여겨질 때에 우리의 心性과 蒙古族의 心性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위의 民謠의 樂譜를 보면 내림 나장조의 4/4박자의 노래이다. 길고 짧은 음이 調和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女人의 모습을 상징한 것 같은 느낌이다.

3.3. 女大出嫁之命歌

다음 民謠는 女大出嫁之命歌(ükin küm-do iYa-qa)이다. 音樂上으로는 나즈막한 음으로 빠르게 부르는 노래이면서 약간 애수에 젖는 그런 내용의 民謠인듯하다.

다음 페이지의 原文의 句節은 4節中에서 2節까지만 說明하기로 하겠다.

㉑ 口語로 된 위 民謠를 Romanize하면 다음과 같다.

- ① ÜNDÜR GA-JAR URU-GANA GECHI-NE HÜI./
- UDĀ-IN MO-DNAI JA-YAGA BAI-NA HÜI./
- URU-GIN GAJARA E-CHINE GECHI-NE HÜI./
- Ü-HIN HÜNEI JA-YAGA BAI-NA HÜI./

原文

奎 章 閣

. . . . .

1. . . . .

2. . . . .

3. . . . .

4. . . . .

. . . . .

② HAJAGU GA-JAR URU-GANA GECHI-NE HÜI./  
 HAILA-SAN MO-DNAI JA-YAGA BAI-NA HÜI./  
 HA-RIN GAJARA E-CHINE GECHI-NE HÜI./  
 Ü-HIN HÜNEI JA-YAGA BAI-NA HÜI./

㉞ 女大出嫁之命歌의 國譯<sup>(11)</sup>

(11) 참고로 女大出嫁之命歌의 漢譯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① 女子 出嫁 如 高地 長柳樹 / 女子 出嫁 如 斜地 長榆株 / 女子 命運 何如此 雙親恩深 未回報 / 女子 命運 何如此 深感遺憾恩 崇高. ② 母親 懷抱 遠勝過 錦之暖 / 母親 哺乳 遠勝過 玉食之飽 / 女子 命運 何如此 雙親恩深 未回報 / 女子 命運 何如此 深感遺憾恩 崇高.

- ① 여자가 시집가는 것은,  
높은 땅엔 긴 버드나무와 같도다.  
여자가 시집가는 것은,  
석양의 긴 느릅나무와 같도다.  
여자의 운명은 아 아——  
부모님의 은공을 보답할 길이 없구나.  
여자의 운명은 아 아——  
부모님의 높으신 은공에,  
보답할 길이 없구나.
- ② 어머니께서는 나를 감싸며,  
따뜻하게 비단 옷에 길렀도다.  
어머니께서는 젖을 주고,  
옥같은 음식으로 나를 길렀도다.  
여자의 운명은 아 아——  
부모님의 은공을 보답할 길이 없구나  
여자의 운명은 아 아——  
부모님의 높으신 은공에 보답할 길이 없구나

위 民謠는 시집을 앞둔 딸의 부모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담은 民謠라고 보겠다. 특히 딸이 어머니에 향하는 마음은 같은 여성으로서, 뼈저리는 아픔을 같이함을 느낄 수 있고, 여자로서 태어나서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몸이 여자라는 운명을 몹시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노래이다.

위와 같은 民謠는 韓國의 民謠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 〈韓國民謠의 例①〉

「가고저라 가고저라 친정에라 가고저라」	「정성집은 뉘가질꼬 정성집은 내가지지」
「가림으나 가림으나 친정에라 가림으나」	「갈지계는 어이갈꼬 오동낭클 꺾어들고」
「치매없이 어이갈꼬 섬치매라 입꼬가지」	「오동오동 가려므나」
「바지없이 어이갈꼬 섬바지 입꼬가지」	「울지계는 어이올꼬」
「정성없이 어이갈꼬」	「느렁낭클 꺾어들고 너롱너롱 오랴무나」
「뒷동산에 짓치달라 송구절판 가랴무나」	「가마채는 어테놓고 마리끝에 걸치놓고」
「뒷교군 누구설꼬 실이라도 서랴무나」	「정성집은 어테늘꼬」
「앞교군 뉘가설꼬」	「청주앞에 걸치놓고」
	「마당안에 들어서서 할배보고 잘있든가」

(12) 任東權 : 韓國民謠集 東國文化社 1961, 서울 pp. 125-127.

「보당끝에 올라서서  
아배보고 머라할꼬」  
「아배아배 잘있는가」  
「안방문을 열트리코  
어메보고 머라할꼬」  
「어매어매 잘있든가」  
「상방문을 열트리코  
올배보고 머라할꼬」  
「올배올배 잘있든가」  
「정지문을 열트리코

형님보고 머라할꼬」  
「형님형님 잘있든가」  
「송구절된 갖고가서」  
「누구누구 논아줄꼬」  
「할배주고 할매조라  
아배주고 어매조라  
올배주고 형님조라」  
「또남았네 또남았네  
송구절된 또남았네」  
「사든주고 너든조라」 (醴泉地方)

여기에서 「정성없이 어이갈꼬」의 句節은 친정 부모에 대한 보답의 정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고 역시 「잘지게는 어이갈꼬/오동낭쿨 겪어들고/오동오동 가려무나」의 대목도 효심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 句節의 「사든주고 너든조라」의 대목에 가서는 친정과 시집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묘사한 귀절이다. 즉 「화목」이 東洋人의 근본임을 이 民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韓國民謠의 例②〉

(父母訃音)

아바님 아바님  
무얼타고 가오리카  
소쿠삼태 타고가림  
아비님 그말마오  
구름접어 가마짓고  
해며다가 안받히고  
무지개따 선두르고  
비물따서 상침놓고  
가마안에 들어앉어  
부모님을 생각하니  
나오나니 한숨이요  
흐르나니 눈물이라  
한모랭이 돌아가서  
비너뻬이 땅에꽃고

두모랭이 돌아가서  
당기풀어 서남에걸고  
세모랭이 돌아가니  
곡성소래 진동하네  
슬피통곡 들어갈제  
오라바니 바뻬나와  
문을열고 들어가네  
오라바님 오라바님  
문점(좁)열어줍시오  
에라이년 물러가라  
네숨씨 좋다하되  
부시썸이 못보았다  
오라바님 말썸마오  
편지한장 안합테다 (瑞山地方)

여기서에도 「가마안에 들어앉어/부모님을 생각하니/나오나니 한숨이요/흐르나니 눈물이라」의 句節은 시집을 가는 딸자식의 마음을 잘 표현한 글이다. 아들은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지만, 딸이란 출가의인이란 전통적인 우리네의 사고란 것을 무시할 수 없었던 사회제도의 한 단면도를 보는 느낌이다.

〈韓國民謠의 例③〉

시집은지 삼일만에

뻬이라고 내려가니

특노가지 하나에다  
 픽삼죽이 잣죽일레  
 그렁세월 보내다가  
 세월질 풍류하니  
 메베논에 메베심고  
 찰베논에 찰베심어  
 논뜰마다 참깨심고  
 밭뜰마다 들깨심어  
 들깨베서 들기름짜  
 참깨베서 참기름짜  
 메떡에는 들기름발고  
 찰떡에는 참기름발라  
 요기조기 놀러담아  
 소케실고 모친보려  
 시아버님 모시고요  
 어머님집 가려하고  
 총각아제 소를몰러  
 가매타고 친정가네

한모퉁이 돌아가고  
 또한모퉁 돌아가니  
 모친님 돌아갔다  
 부고왔네 이게웬일  
 꿈이더나 생시더나  
 어서가세 어서가세  
 거문가며 바뀌어서  
 흰가매 잡아타고  
 달비풀어 품에 품고  
 머리풀어 발상하고  
 한모퉁 돌아서니  
 관자짜는 소리나네  
 벌서벌서 청개덜네  
 오빠님 오빠님  
 그래글이 좋다드니  
 편지한장 진작하지  
 모친얼굴 다시볼겘 (通川地方)

여기에서도 「소케실고 모친보려……가매타고 친정가네」의 장면은 비록 시집살이가 고단하고 어려운 생활 여건이지만 모처럼 친정 나들이에 어머님에 대한 딸의 지극한孝心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모퉁이 돌아가니 모친님 돌아갔다……오빠님 오빠님 그래글이 좋다드니 편지한장 진작하지 모친얼굴 다시볼겘」이란 대목은 친정 오빠에 대한 원망 그리고 평소 어머님을 찾아 뵈지 못한 딸의 원한을 그린 글이라 생각된다.

#### 〈韓國民謠의 例④〉

불같이 더운날에  
 사례질고 장찬발을  
 뉘같이도 길은발을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세,골을 메고나니  
 부모죽은 부고왔네  
 비네뻘어 품에 품고  
 신을벗어 손에 들고  
 머리풀고 발상하여

한모랭이 돌아가니  
 까막간치 진동하고  
 두모랭이 돌아가니  
 곡성이 진동하네  
 아홉오람 맛오람아  
 팍문조품 열어주소  
 萬里간 우리父母  
 다시 한번 보자시오 (威安地方)

여기에서도 그 內容은 例③과 비슷하다.

우리가 例①②③④에서 살펴 보았듯이 蒙古民謠의 「女大出嫁之命歌」와 내용이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 단지 例①②③④는 시집을 간 후에 어머님을 생각하며, 효도하려 할 때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후에야 찾아 뵈는 딸의 운명을 그린 것이고, 蒙古民謠에서는 시집을 앞둔 딸이 부모에 대한 은공을 갚을 길 없음을 한탄하는 여자의 운명을 그린 것이다.

아무튼 이들의 民謠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몽고 민족의 心性의 일치점을 찾아 볼 수 있을 음을 계기로 그들과 우리네의 깊은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㉞ 女大出嫁之命歌의 樂譜.

6 2 3 2 i 6 5 5 5 i 6 6 i 3 2 -

① 女子 出 嫁 如 高 地 長 柳 樹  
② 母親 懷 抱 遠 勝 過 錦 衣 之 暖

6 2 3 2 i 6 5 5 6 i 3 2 i 6 -

女子 出 嫁 如 斜 地 長 榆 株  
母親 哺 乳 遠 勝 過 玉 食 之 飽

i i 6 i 2 3 2 5 6 3 2 2 6 5 -

女 子 命 運 何 如 此 雙 親 恩 深 未 回 報  
女 子 命 運 何 如 此 雙 親 恩 深 未 回 報

i i 6 i 2 3 2 5 6 3 2 2 6 2 -

女 子 命 運 何 如 此 深 感 遺 憾 恩 崇 高  
女 子 命 運 何 如 此 深 感 遺 憾 恩 崇 高

위 民謠의 樂譜를 보면 내림 바장조이며 애수가 짙은 그런 슬픔의 노래인듯하다. 마치 女性의 運命을 말해주는듯한 느낌이다.

3.4. 愛情歌

아래 民謠는 愛情歌(kongnorai büikar kaku dagou)이다. 音樂上으로는 바장조 2/2박자이며 달콤한 내용의 노래이다.

아래의 原文의 句節은 4節이나 說明은 2節까지만 하기로 하겠다.

㉞ 口語로 된 이 民謠를 Romanize 하면 다음과 같다.

① MANDAJU GARAHU NARNAI GERLE/  
HÜI MANGHANAI/  
DĒ-REN DULAIN DUSNA HÜI/

② MANAI SHU AI-LIN HONGRAI BÖRÖ/



HÜI MANGSHURHU/  
JÜDENES GARHU ÜGEI HÜI/

原文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愛情歌의 國譯<sup>(13)</sup>

- ① 해가 뜬는 동쪽에서  
 찬란함이 솟아 나는도다.  
 폭염의 사막이여 —  
 한 편의 구름이 비치어 오는도다.
- ② 나를 생각하니  
 마을 안에 紅格雷는 매우 아름답도다.  
 지난 밤에는  
 나는 그대를 꿈 속에서 만났도다.

위의 愛情歌에서,

蒙古民族의 男女사이의 愛情觀을 단편적이거나 알 수 있는 것 같다. 역시 대륙적이고 기  
 마 민족이라 그런지 어딘지 모르게 활활 타오르는 듯한 정열을 맛 볼 수가 있는듯하다.  
 말하자면 사랑에 있어서도 용맹스럽고 사나운 야성적인 애정관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3) 참고로 漢譯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旭日 東昇 絢爛發 / 焚 沙漠 / 一片 普 受照 臨. ② 想我 村裏 紅格雷多俏 / 麗 昨夜 / 你我 夢中 / 相偎依.

그러면 韓國의 民謠中에서 ‘相思謠’를 例를 들어 보자<sup>(14)</sup>

〈韓國民謠의 例①〉

앞마을의 늙은처자  
 뒷마을 늙은총각  
 들의마음 다들레라  
 늙은총각 지날때면  
 잔기침을 다시하고  
 방에가친 늙은처자  
 속마음이 두근두근  
 나이많은 처자라고  
 물길러도 안보내고

빨래질도 안보내니  
 만날길이 없었드라  
 五月이라 단오날에  
 뒷마을의 늙은총각  
 그네피다 죽었다고  
 선달이라 그믐날에  
 앞마을의 늙은처자  
 널피다가 죽었다고 (禮山地方)

〈韓國民謠의 例②〉

山川이라 妙한지라  
 吉州明州 가시다가  
 빨래하네 빨래하네  
 색시들이 빨래하네  
 선兩짜리 거두부채  
 색시앞에 던져놓고  
 그야부채 주야주면  
 색시體面 떨어지나  
 도령집은 어디근대  
 해빠진데 질을가노  
 우리집을 불러거든  
 大邱땅에 내리달아  
 鄭同知네 孫子내라  
 색시집은 어디근대  
 해빠진데 빨래하노  
 우리집을 불러거든  
 義城땅에 내리달려  
 金상달네 孫文르네라  
 글로해서 얻은病이  
 巫堂들여 굿을한들  
 굿빨이나 받을소냐  
 醫員들여 藥을쓴들  
 藥빨이나 받을소냐  
 봉사들여 讀經한들  
 讀經빨을 받을소냐  
 바람불어 늙은댕기  
 눈비와서 일어나리  
 바람불어 일어나리

님을바야 일어나지  
 우리할배 거동보소  
 의을綱布 두리치며  
 통냥갓을 눈에쓰고  
 시시삼삼 점보선에  
 육양미를 담아신고  
 白頭驛말 집어타고  
 馬夫없는 말을타고  
 義城땅에 내리달려  
 金상달네 大門밖에  
 白頭驛말 매어놓고  
 大門안에 들어서서  
 나서그라 나서그라  
 어서바삐 나서그라  
 三代獨子 외동아들  
 널로해서 얻은病이  
 나날이도 길어가노  
 다달이도 길어오네  
 모시분포 시문포술  
 솔솔더러 丹裝해라  
 銀가락지 조흠디이  
 지하물에 丹裝해라  
 大邱땅에 내리달아  
 鄭同知네 大門안에  
 舍廊앞에 꽃이깃네  
 웃음소리 꽃이깃네  
 말이화초 꽃이깃네 (義城地方)

(14) 前掲書 pp. 168-169.

〈韓國民謠의 例③〉

山川이라 妙한길에  
吉州明州 가다가니  
이름없는 꽃이피네  
꽃아꽃아 곱은꽃아  
지지말고 기달려라

요번행비 돌아가서  
훗번행비 다시올때  
다시한번 만나보자  
나는무슨 빌꽃인가  
남질적에 아니지고 (義城地方)

위의 例 ①②③의 韓國民謠에서 보는 ‘相思謠’는 대체적으로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共死, 同死, 또는 남을 원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랑의 노래라고 본다면, 蒙古民謠에서 보는 그네들의 사랑노래는 쾌활하고 야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네는 수동적이며 소극적이라면 그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 愛情歌의 樂譜

旭 日 東 昇 絢 爛 燦  
想 我 村 裏 紅 格 雷 多 俏

燦 麗 沙 漢 昨 夜

一 片 普 受 照 臨  
你 我 夢 中 相 依

위의 民謠의 樂譜를 보면 長音으로 된 달콤한 사랑의 노래인듯하다. 역시 蒙古民族의 愛情歌다운 노래이다.

4. 結 語

이상과 같이 蒙古民謠의 沿革, 音樂, 歌詞, 樂器 등을 對譯하고 蒙古民謠의 實例인, 成吉思汗紀念歌, 美麗的姑娘, 女大出嫁之命歌, 愛情歌를 資料와 함께 說明을 곁들여 소개하였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네의 생활 양상과 그들의 생활

양상 등이 상호 관계가 있는듯하게 보이는 것과, 역시 풍습과 民謠를 통해서 보면 원래부터 그들과 우리들은 한 계통의 민족이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Altai 계통의 민요를 더 많이 찾아 우리 민요와 비교 연구함으로써 그 공통성을 찾아, 언어와 더불어 Altai 계통의 근원을 보다 확실하고 신빙성있게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글은 우리 민족과 몽고 민족이 한 갈래에서 떨어져 나왔음을 앞으로 보다 더 확실히 考證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처음 작업이라 作業上 약간의 무리도 있었으나, 잘못된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돌리고 우선 우리 學界에 蒙古民謠를 처음으로 紹介하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金炯秀; 蒙學三書研究(Ⅰ) 大邱 (1974)

金芳漢; 國語의 系統研究에 關하여 —그方法論的 反省—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 (1966)

金芳漢; 한국어의 알타이어적 요소 「한글」 (1978)

朴恩用; 滿洲語文語研究(Ⅰ)(Ⅱ) 大邱 (1973)

朴恩用; 新國語學概說 서울 (1981)

李基文; 國語史概說 서울 (1978)

任東權; 韓國民謠集 東國文化社 서울 (1961)

羽田 亨; 滿和辭典 京都

金澤庄三郎; 日本語と蒙古語 東京 大正九年

小澤重男; モンゴール 四週問 大學書林

山本謙吾; 滿洲語口語基礎語彙集 東京外大 (1969)

服部四郎; 蒙古語の口語と文語 蒙古學報2 (1941)

服部四郎; 蒙古字入門 東京 (1946)

蒙古語大辭典; 日本陸軍省 昭和 9年

哈勘楚倫·吳榮柱; 合編 蒙古民謠 蒙藏委員會印

哈勘楚倫; 蒙古語文 中國邊疆歷史語文會印行

Mongolian—English Dictionar; Ferdinand D. Less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0

Ural Altaische Völker und Sprachen; DR Heinpich Winkler Berlin 1884

S.M. Shirokogoroff; Social Organization of the Northern Tungus

The Gospel of S. John; Classical Mongolian Shanghai 1900

Kaare Grønbech and John R. Krueger; An Introductin to Classical Mongolian 1955. Otto

Harrassowitz. Wiesbaden.

Nicholas Poppe;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1954

Dictionnaire Mongol-Russe-François; KASAN 1884

蒙古語讀習書(卷一)

蒙古語讀習書(卷二)

蒙古語捷經

捷解蒙語

蒙語老乞大

清文書經

清文彙書

蒙古文字卜其發音

滿蒙漢三文合璧教科書

蒙漢合璧五方元音

蒙古字典(上)(下)

蒙文分類辭典(上)(下)

和蒙辭典

蒙和辭典

古文

御製勸善要言

一學三貫清文鑑